부처님 일대기 담은 '송광사 팔상도' 국보 된다

문화재청 2월 27일 지정 예고
영산회상도 1폭, 팔상도 8폭
영조代 송광사 영산전 봉안돼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 다양성
팔상도 새로운 전형을 제시해"
남원 대복사 동종 보물 예고도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1 도솔래의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2 비람강생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3 사문유관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4 유성출가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5 설산수도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6 수하항마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7 녹원전법상.


송광사 영산전 팔상탱 제8 쌍림열반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압축해 묘사한 불화를 '팔상성도'라고 한다. 부처님의 팔상은 불교문화권 전반에 공유된 도상이지만, 구성과 주제, 표현 방식은 나라와 시대별로 차이가 있다.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것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의 팔상도다. 이는 호남과 지리산 일대 사찰에 조성된 팔상도에 영향을 줬을 정도로 빼어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순천 송광사 팔상도와 영산회상도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승려 장인 정우의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과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200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20여 년 만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로,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돼 있다.

팔상도는 조선 초기에는 〈월인석보(月印釋譜)〉의 변상도를 차용한 팔상도가 제작되다가 후기에 접어들면서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제시된 도상으로 새로운 형식의 팔상도가 유행했다.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순천 송광사 팔상도이다.

현재 송광사성보박물관에 수장 중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화기를 통해 1725년(조선 영조 1)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확인되며,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해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수화승 의겸의 지휘 하에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팔상도 각 폭이 통일된 필선과 색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화제로 구성된 팔상의 인물들은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고, 전각 및 소나무 등을 이용해 공간성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등 구성과 표현에 있어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장(僧匠) 정우가 신원 등 7명과 함께 1635년(조선 인조 13)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鑄鍾匠)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立狀蓮瓣文帶),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와 보물로 지정 예고된 2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중독사회 문제 다룬다

11월 16일, 중독 · 명상 학술대회
청소년 중독 · 재활치료 등 다뤄
봉축 음악회 · 영상관법 강연도

중독과 우울이 21세기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적 수행법인 명상이 중독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학회장 손강숙)가 중독과 우울, 명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11월 16일 오후 1시부터 ㈜청호불교문화원 4층 세미나실에서 '21세기 중독과 우울, 그리고 긍정적 중독으로서의 명상'을 주제로 추계정기학술대회를 갖는다.

학술대회에서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이자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이 '중독과 명상'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어 △대학생의 중독 실태와 중독 프로그램(안세윤 건양대 교수) △청소년의 중독과 학교 명상 프로그램(김진섭 영복중 전문상담교사) △병원에서의 중독과 재활치료 프로그램(문일수 동국대 의대 교수) 발제가 이어진다.

손강숙 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독 문제를 명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면서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중독의 실태와 그 대처 방안으로서의 명상기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병원에서 중독 회복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기반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올 한 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친다.

4월 18일 대만 불광산사에서 '한국·대만의 전통적인 불교 명상상담과 서구의 명상상담의 융합'을 주제로 춘·추계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간화선과 명상상담(인경 스님) △무문관 수행과 상담(금강 스님) △대만불교와 불교 전통명상(대만 불광산사 선원장 스님) △〈잡아함경〉의 첨병 명상 사례(정지명 대만 보인대 교수)가 발표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봉축 음악회를 개최한다. 김준희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렉처콘서트로 클래식 음악연주 후 강연이 이어진다.

6월 14일에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법륜전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선재길'을 주제로 '성지순례명상의 이론과 실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6월 22일, 7월 27일, 8월 24일 3차례에 걸쳐 인경 스님 출판기념회 및 영상관법 강연도 열 예정이다.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문상담서비스지원법 법제화를 위한 활동도 펼친다. 이필원 상임이사는 "전국 상담관련 분야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한 목소리로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영국·프랑스 요리사 '사찰음식' 매료되다

불교문화사업단, 2월 20~24일
런던 · 파리 '르꼬르동블루'서 강의

세계적인 조리교육기관 '르꼬르동블루'에서 한국 사찰음식 강의가 이뤄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2월 20~21일 주영국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르꼬르동블루 런던 캠퍼스에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을 강의했다.

프로그램은 채식 전문 과정과 일반 대상 특강으로 나눠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일반인 대상 특강에는 당초 60명 정원을 훌쩍 넘긴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신청해 한국 사찰음식에 대한 호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르꼬르동블루 파리캠퍼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의가 열리고 있다.

강사로 나선 사찰음식전문가 법송스님은 강의에서 사찰음식에 담긴 기본 철학부터 다양한 조리법을 포함, 이색적이면서도 영양가 높은 채식 요리를 소개했다. 20일 열린 채식 전문과정 강의에서는 연근구이, 서리태죽, 생강고추장볶음을, 21일 일반 특강에서는 우엉콩전, 톳조림주먹밥, 무들깨탕을 시연했다.

2월 23~24일에는 르꼬르동블루 파리 본교 캠퍼스로 이동해 채식전문과정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의가 열렸다. 총 16명이 참여한 전문가 대상 채식 강의에서는 겨울콩나물김밥, 매생이수제비, 미역당면무침을 선보였고, 총 75명이 참가한 일반인 대상 특강에서는 고구마찹쌀전, 무조림, 사찰김밥을 시연했다.

문화사업단은 2019년부터 르꼬르동블루 런던 캠퍼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8월)씩 사찰음식 강좌를 열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본교인 파리 캠퍼스까지 확대·진행 중이다.

문화사업단은 "르꼬르동블루에서 진행된 특별 강의는 현지에서 한국 사찰음식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내영 기자

대행 선사 '한마음사상' 치유철학으로 조명한다

대행선연구원 3월 16일 제18회 계절발표회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한마음 사상을 치유철학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3월 16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2024년 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윤종갑 동아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김성옥·이관수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자타의 구별 없는 한마음의 이해'를 통해 '한마음'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너와 나의 구분 없는 마음'을 조명한다. 이들은 사람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의 마음이 독립적인 단일체일 수 없다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나의 마음은 항상 다른 마음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것이어서 자타의 구분이 없는 것임을 소개한다. 논평은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맡았다.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치유철학으로서의 한마음 사상 연구'를 발표한다. 지혜경 전문연구원은 대행 선사가 불교의 마음 담론과 일심 개념을 '한마음'과 '주인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는 '한마음 사상'을 정립했음을 전제하고 이를 치유철학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발표의 논평은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과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이 제주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사상과 불교 사상을 집중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와 더불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불교학 관련 전공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발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발표 자료집도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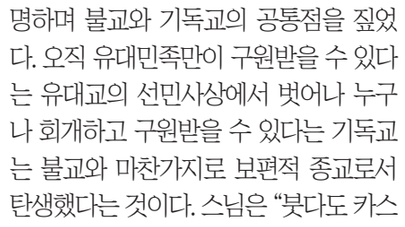
갤러리 한옥, 박근덕 작가 개인전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를 전통 단청 문양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

서울 종로 갤러리 한옥은 3월 5~13일 전통 단청 기술자인 박근덕 작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古來로부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들을 모티브로 전통 단청 문양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된다.

박근덕 작가는 "이번 전시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들이 모티브가 됐다. 시간의 기억으로 새겨진 선사시대 고래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변천되어 이어져 온 문양이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종교학 박사' 스님이 본 불교·기독교의 면면들

서강대 외래교수 홍진 스님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발제

불교평론이 주관하는 열린논단에서 '기독교'를 공부한 스님이 발제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평론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와 공동으로 2월 22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117회 열린논단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열린논단은 '종교학 박사님이 공부한 기독교'를 주제로 서강대 종교학과 외래교수 홍진 스님이 발제했다.

홍진 스님은 "비교종교학 학위를 취득하긴 했지만 특정 종교 입장에서 이기를 따지는 비교종교학보다는 종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종교현상학에 입각해 기독교를 바라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님은 개괄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설명하며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짚었다. 오직 유대민족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의 선민사상에서 벗어나 누구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종교로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스님은 "붓다도 카스트제도를 거부하고 누구나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사랑'을 꼽은 스님은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곧 휴머니즘"이라며 기독교와 불교 모두 인간의 본질을 사랑으로 보는 휴머니즘이라 설명했다.

홍진 스님은 기독교의 케노시스와 불교의 무아(無我)를 주목하기도 했다. 불교에서 사람이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 차 있듯 기독교에서도 사람은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신의 뜻을 채워넣는 것이 바로 케노시스이다. 스님은 "자아를 비우고 하느님의 뜻을 수용한 후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잣거리 단계'는 입전수수(入廛垂手)와 같은 맥락"이라며 "자기희생의 가치는 기독교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우 수습기자